

재즈를 듣다 - 3

영가, 가스펠, 블루스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미국 흑인인권운동가인 말콤 엑스(Malcolm X)의 성이 ‘엑스’인 이유는 절대다수 흑인의 성이 사실은 백인 노예주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원래 아프리카의 성을 알 수 없어 엑스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 계열 개신교 목사였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엔 교회를 다니다 훗날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연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과거 백인 노예주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런 자의식이 흑인 사회에서 생겨나 흑인 민권 운동으로 확대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부터다. 그전까진 별 거부감 없이 백인의 종교를 받아들인 듯하다. 하지만 유대교 경전을 읽고,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하는 형식만 동일할 뿐 흑인 기독교 문화는 백인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비슷한 사례를 브라질 칸돔블레(candombl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 토착 신앙과 가톨릭이 뒤섞여 뿌리를 내린 종교다. 구체적으로는 유일신을 (아프리카 창조신인) ‘올로룸’으로, 신의 아들들 ‘오살라’로, 성모 마리아는 ‘이에만자’로 대체해버렸다. 바꿔 말하면 백인으로부터 기독교 경전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동안 흑인들은 자신의 고향인 아프리카 신들을 떠올렸고, 감정이입했다고 볼 수 있다. 흑인 민중에 의해 형태 및 내용이 변모한 사례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와 주변 섬나라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북미의 흑인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칸돔블레처럼 등장인물 자체를 아프리카식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그들이 맘속으로 그린 신은 백인과 완전히 같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여담으로 용산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던 당시 이태원, 삼각지 부근 화방에선 ‘검은 피부 예수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흑인 군인이 종종 사 갔기 때문이다. 나는 흑인영가와 가스펠의 등장 배경에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급진적 인권운동가였던 말콤 엑스에겐 이와 같은 형식의 계승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듯하다.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극적 효과를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장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관련 자료들과의 비교 검증 작업을 거치고 나면 간접 체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영화 장면을 소개하려 한다. 첫째, 소울 음악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생애를 다룬 2014년 개봉작, ‘겟 온 업(Get on Up)’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흑인 교회에는 예배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온다. 한국 무속의 신내림과 유사한 이런 광경은 백인 교회에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신앙이 기독교



Get on Up / 출처 : imdb.com



The Blues Brothers / 출처 : imdb.com

이 숨어있다. 일본 만화 영화 제목인 ‘신세기 에반게리온’도 여기에서 온 것이다. 중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신세기 복음전사(新世紀 福音戰士)’였다.

‘COGIC’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 in Christ)’의 약자로 성령 강림, 병 고침, 방언 등 초자연적 은사를 강조하는 이른바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주류 교단 중 하나다. 유명 가스펠 가수 상당수는 이 교파 소속이거나 관련을 맺고 있다. 또 이유는 모르겠으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초기 가스펠 가수는 대부분 여성이다. 그중 시스터 로제타 서프(Sister Rosetta Tharpe), 매리 나이트(Marie Knight), 마할리아 잭슨(Mahalia Jackson)을 짧게 소개하려 한다.

와 융합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매우 재기발랄하면서도 가스펠과 블루스를 그대로 우려낸 작품, 1980년 개봉된 영화 ‘블루스 브라더스(The Blues Brothers)’다. 영화의 재미를 위해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성령 충만한’ 흑인 교회 이미지를 잘 살렸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레이 찰스(Ray Charles), 존 리 후커(John Lee Hooker) 등 당대 최고의 쏘울, 블루스 가수가 대거 출연하여 절반은 뮤직비디오라고 봐도 될 정도다.

‘가스펠(gospel)’이란 말의 기원은 ‘God Spell’에서 유래했다. ‘기쁜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의 번역어로 쓰였다. 한국어로는 ‘복음(福音)’이라고 번역됐다. 1971년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뮤지컬 제목으로 쓰인 ‘가스펠(Godspell)’에는 이런 맥락

시스터 로제타 서프는 모친의 영향으로 이미 6세 때부터 COGIC 계열 교회의 공연단 일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한 영상 중 개인적으로 ‘비가 내렸나(Didn't It Rain)’를 제일 재밌게 봤다. 마차에서 내린 뒤 기차 플랫폼을 천천히 걸어가다 갑자기 기타를 메더니 연주와 노래를 하는 영상이다. 현대적 뮤직비디오의 원형 같은 느낌도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가스펠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풍기 문란한 음악이라 비난받았던) 락앤롤의 선구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름 아닌 기타 연주 때문에 그렇다. 놀랍게도 전기 기타를 연주한다. 주법에 있어서도 독창적이었다고 한다.

매리 나이트도 로제타 서프와 마찬가지로 COGIC에 속한 가수일 뿐 아니라 한동안 로제타 서프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대단히 풍부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Sister Rosetta Tharpe / 출처 : thedailybeast.com



Marie Knight / 출처 : imdb.com



Mahalia Jackson / 출처 : caamuseum.org

나는 마할리아 잭슨을 앞의 두 사람보다 한 세대쯤 어린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무엇보다 동영상에 흑백이 아닌 ‘컬러’라서 그랬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니 세 분 다 동년배였다. 화려한 경력 중 특히 눈에 띈 장면은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로 시작하는 역사적인 연설 현장에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짐 싸서 떠나버려, 잭(Hit the road, jack)’, ‘사랑을 멈출 수 없어(I can't stop loving you)’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레이 찰스(Ray Charles) 음악은 가스펠과 관련이 깊다. 그의 일생을 다룬 2004년 영화 ‘레이(Ray)’ 중에는 신성한 음악인 가스펠을 대중음악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비난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논리라면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역시 비난받아야 하나? 동의할 수 없다. 당사자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으나, 나처럼 흑인 음악 주변에 머무는 사람으로선 그 주장이 공감이 가진 않았다. 중세 유럽 음악을 봐도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을 나누는 기준은 음악 형식이 아닌 가사가 결정적일 때가 많다. 가스펠과 블루스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본다. 다소 억지를 부려 보자면 ‘가스펠 = 종교적 블루스’, ‘블루스 = 세속적 가스펠’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

대다수 장르 이름이 그러하듯 블루스(Blues)의 어원도 확실치 않다. 그중 하나가 블루 데빌스(Blue Devils)의 줄임말이라는 설이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미국 남부 흑인의 우울, 슬픔 등을 소박한 가사와 선율로 표현한 것이다. 블루스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형식이 있다. 첫째, 총 12마디를 삼등분하여 4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구성한 일종의 정형시다. 둘째, 블루노트(Blue Note)라는 독자적인 음계를 사용한다. 이것은 서아프리카의 성조 언어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성조 언어는 중국어다. 북경어는 4성, 광둥어는 최소 6성에서 9성까지가 있는 굴곡조 성조(contour tone)지만, 아프리카 언어는 굴곡이 없는 대신 높은 음, 중간 음, 낮은 음 등 상대적 음높이로 뜻을 구별하는 수평적 성조(register tone)라는 차이가 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혀 온 (성조 언어를 사용하던) 흑인 노예들이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를 ‘필드 할러(Field Holler)’라고 한다. 이 ‘소리’는 언어이기도 하고, 외침이자 절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했던 것 같다. 기보가 불가능한 이



Blind Lemon Jefferson / 출처 : guitarvideos.com

소리를 유럽식 오선보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블루 노트 음계가 탄생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인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란 이름을 홀로 추측하길 핑크는 동성애, 플로이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말장난이 아닌가 했다. 사실은 밴드 리더인 시드 바렛이 초기 블루스 가수인 핑크 앤더슨(Pink Anderson)과 플로이드 카운실(Floyd Council)을 조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핑크 플로이드가 아니었다면 극소수 블루스 마니아 외엔 아무도 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다. 유튜브를 검색하여 들어본 두 사람의 음악은 한마디로 말해 미국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듣는 듯했다.

초기 블루스는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포크 음악에 가까웠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가수는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Blind Lemon Jefferson)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 19세기 말에 태어



Ma Rainey
/ 출처 : nytimes.com



Rabbit Foot Minstrels
/ 출처 : aurorasginjoint.com

나 36세에 사망할 때까지 80여 장의 음반을 남겨 세칭 ‘텍사스 블루스의 아버지’라 불린다. 이 외에도 레드벨리(Leadbelly),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등이 있다.

두 명의 위대한 여성 블루스 가수가 있었다. 마 레이니(Ma Rainey)는 초기엔 ‘토끼 발 민스트렐(Rabbit Foot Minstrels)’이란 유랑 극단에서, 나중엔 ‘레이니와 레이니의 블루스 암살자들(Rainey and Rainey, Assassinator of the Blues)’ 단체를 만들어 공연하였다. 1923년 파라마운트에서 최초 녹음을 시작하여 100여 곡을 녹음하여 초기 블루스의 어머니로 불린다. 대표작으로는 ‘볼 위벌 블루스(Boll Weevil Blues)’, ‘씨 씨 라이더 블루스(See See Rider Blues)’ 등이 있다.

베시 스미스(Bessie Smith)는 말할 것도 없는 초기 블루스의 여제였다. 대표작으로는 ‘상심의 블루스(Downhearted Blues)’, ‘세인트루이스 블루스(St. Louis Blues)’ 등이 있다. 이분의 죽음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화가 난다. 1937년 9월 26일,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흑인이란 이유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그녀는 이미 ‘상심의 블루스’를 200만 장이나 판매한 유명인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인종 차별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나온다.

블루스는 재즈의 모태일 뿐 아니라 백 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독자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모하였다. 20세기 말엔 세 명의 ‘킹’을 배출하였다. 그중 최고는 역시 비비 킹(B. B. King)이다. 가수 한영에 씨가 부른 ‘루썰’은 비비 킹이 연주하는 기타의 애칭이다. 수많은 명반, 명곡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설렘이 사라졌네(The Thrill Is Gone)’를 유튜브 등으로 꼭 시청해보시길 권한다.



Bessie Smith / 출처 : britannica.com

앨버트 킹(Albert King)은 1967년에 발매한 ‘나쁜 징조로 인해 태어났다(Born Under A Bad Sign)’가 히트하여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스티브 레이 본(Stevie Ray Vaughn)이 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연주자다. 유튜브에서 협연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프레디 킹(Freddie King)은 42세로 단명했지만, 후대 기타 연주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에 있어선 두 킹에 못잖다.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여성을 사랑해 본 적 있나(Have you ever loved a woman)’에서 보여준 연주가 압권이었다. 🎸



B. B. King / 출처 : britannica.com



Albert King / 출처 : britannica.com



Freddie King / 출처 : donstunes.com